

UFO와 우주철학의 행방(VIII)

— 우주철학으로 난치병을 치료하는 방법 —

항공우주연구소 편역

요사이 GAP 회원의 가족 분들 중에, 암이라든지 그 밖의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예가 적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의가 있는 회원이라면, 우주 철학의 응용에 의해서 자신의 병 정도는 당연히 고칠 수 있지만, 단 가족의 경우는 가족이라고는 하더라도 자신과는 별개의 사람이므로, 타인으로부터의 상념의 힘에 의해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극히 어려운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기적의 물을 마시게 해달라든지, 그 밖의 방법을 의뢰해 오기도 하는데, 저로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난치병이 낫도록 가능한 한 노력을 경주할 생각이지만, 때가 늦은 경우, 또는 숙명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낫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해서 여기서 조금 정리해 봅시다.

우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

우선 병이 났다면, 먼저 의사의 진찰을 받고 적절한 처방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아프리카의 어느 종족과 아메리카 인디언은 주술적인 방법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난치병을 고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문명인은 이와 같은 주술에 의지해서는 거의 효과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부정적인 상념이 앞서기 때문이며 그 때문에 시술자의 상념과동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누구나가 전적으로 긍정하고 다 믿어버리고 있는 서양 의학의 과학적인 방법이 자신의 상념에 합치되기 때문에 흰가운의 훌륭한 풍모를 지닌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권위 있는 말로 「처방을 받고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낫는다!」라고 전해 들으면 이미 반은 나아 버립니다.

에덤스키의 이론은 증명되었다

실제 인간의 육체만큼 암시나 판 것으로부터의 상념에 의해 지배되기 쉬운 것은 없다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에덤스키가 대단히 좋은 실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 에덤스키 전집 제 2권 「초능력 개발법」입니다. 이 책은 예전에 에덤스키가 저에게 선물한 것으로 원서명은 「Telepathy-The Cosmic Universal Language」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초능력의 일종인 텔레파시 능력의 개발법을 기술한 서적이지만 주로 인체 세포의 기능에 관해 해설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1950년대에 이 정도로 많은 지식 정보를 전한 책이 나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경이적이며 에덤스키가 얼마나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덤스키가 설명한 세포의 기능에 관한 과학적인 실태를 확증하는 듯한 책이 최근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세포의 신비한 힘(상전사)」라는 책으로, 저자는 미국의 과학자 로버트·B·스톤 박사, 역자는 도쿄 외국어 대학 교수 나라(奈良毅)씨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관해 여기서 상술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이 책을 보면 예전에 에덤스키가 말한 내용이 어떻게 진보적으로 시대를 앞서가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깨닫고 독자는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에덤스키의 세포에 관한 지식은 실은 우주인(진보한 혹성에서 온 우호적인 외계인)에게서 전해들은 것이므로 처음부터 지구의 학문과는 월등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테리 인간은 병이 나기 쉽다

이야기를 되돌려서 앞에 언급한「초능력 개발법」의 내용 중 「걱정 때문에 중병에 걸린 부인의 예」라고 제목 붙인 작은 표제가 있는데 거기에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에덤스키가 아는 부인으로 집안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집안은 언제나 그 부인에 의해 너무나 잘 정리 정돈되어 있는 상태이며, 아이들에게도 끊임없이 시끄러운 잔소리를 하고 철저히 가정울 지배하고 있으므로 남편은 비오는 밤 같은 때는 집에 돌아와도 뒷문으로 돌아가서 구두를 벗고 양말을 신은 채로 들어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서양사람의 집은 언제나 신발을 신은 채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남편에게 있어서는 괴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젖은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면 마루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부인의 히스테리가 폭발해서 호통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도 대체로 청소하는 것을 좋아하

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결벽증 여성은 신경질적인 형이 많은데, 이 부인도 그 예에서 벗어나지 않는 형이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부인은 걱정과 긴장감으로부터, 마침내 중증의 폐결핵이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상념은 우선 본인의 전신 세포에 확실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무나도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상념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사람은 뭔가의 병에 걸리기 쉬운 것입니다. 항상 침통한 표정의 사람은 대개의 경우 위가 나쁜 사람이 많습니다.

부인이 진찰을 받은 의사는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완벽하게 병을 고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서 충고했던 것입니다. 「오늘 맥의 피아노 위에 조금 먼지가 있다고 해도 앞으로 40년 후에 그런 사실은 누구도 모를 것이고 마음에 두지도 않겠죠? 그러므로 마음을 느긋하게 갖고 이제부터 40년 후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이 끊임없이 가족들을 비난했던 것이 얼마나 허찮은 일인가라는 것을 조금은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대 변화가 부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명의의 말에 순순히 따른 부인은 입원 중에 고용한 젊은 가정부가 대단히 명랑한 여성으로 모든 일을 솜씨 좋게 처리해 주어서 부인은 완전히 안심하고 마음을 느긋하게 가졌기 때문에 폐결핵은 깨끗이 나았고, 예전과는 들떠난 상냥하고 온화한 여성이 되어 명랑한 가정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는 우선 밝고 낙천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로 걱정하지 않는다. 노여움, 원한, 증오, 그 밖의 분열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상념을 밝은 플러스 상념으로 바꿀 것. 그것을 위해서는 만물 일체감을 계속해서 갖고, 만인과 만물에 조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초능력 개발법」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파괴적 감정에 자신의 상념을 지배당하도록 내버려두는 한 육체의 자연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되고 바람직한 성질의 파동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견고한 방벽을 쌓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훌륭한 이미지 법

인간의 상념이 육체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우선 자신의 상념을 건설적인 긍정적 상념(플러스 상념)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건강하고 완전하며 아름답게 창조되었을 육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

하므로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으로서 자신의 마음속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병에 걸린 사람은 완전히 나아서 건강한 몸이 되어 기쁘게 뛰어 다니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똑똑히 선명하게 계속해서 그리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상념파동의 일종이므로 그것은 육체세포에 반드시 영향을 줄 것이고 끈기 있게 계속한다면 머지않아 그 이미지대로 육체가 변형되어 갈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몸이 회복되어 건강한 육체로 변형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이 방법을 응용해서 아이의 암을 깨끗하게 치료한 명의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암세포를 해치울 강력한 군단이 아이의 몸 속에서 진격하고 있는 광경을 이미지로서 그리게 했던 것인데 그 결과, 암이 조금씩 사라져 완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화는 옛날 미국의 어느 유명한 잡지에 게재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치료법을 시행하는 의사를 찾는다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초보자라도 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진찰 받고, 의약의 치료를 받아 낫는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 빠른 과학적 방법이므로 우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애덤스키에 의하면, 대단히 진보한 혹성에는 특수한 만병치료가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루에 수분 동안 환부에 방사선을 방사하면 어떤 난치병이라도 간단히 낫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요컨대 과학적인 기계이지, 정신적인 물건은 아닙니다. 우주인은 이 기계를 뉴욕의 어느 큰 병원에 기증했다고 하지만 그것뿐이며 전혀 세상밖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기계가 대량 생산되어 한 대가 100달러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 나온다면, 세계의 의료계는 완전히 파괴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 때문에 경제 공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숨겨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기가 되면 지구에도 이와 같은 치료 기계가 개발되어 큰 혜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매우 효과가 큰 반복 상념법

「그렇지만 다음 세기까지는 기다릴 수 없다. 지금 암이 진행 중이다. 어떻게 해서든 고치고 싶다!」라고 비통하게 외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정말로 가엾은 일입니다. 저는 71세가 되어서야 겨우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난치병으로 신음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 속 깊이 동정의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인 치료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애덤스키의 우주 철학을 연구 실천해 온 저에게는 나름대로의 훌륭한 치료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상념

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상념은 세포에 지대한 영향을 주므로 그 상념의 힘을 응용하는 것입니다. 저의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저는 끊임없이 외치는 말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틈만 있으면 반복하며 마음속으로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건강. 절대 건강.

나는 완전. 절대 완전.

이 말은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든 뒤에 위를 향해 머리를 뒤로 젖힌 채 대우주 상념법을 행할때에 장시간 외칩니다. 그리고 외치면서 잠들어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또는 무언가의 병을 빨리 고치려고 하는 경우는 이 “고치는 말”을 끊임없이 외치고 그 상념을 전신의 세포에 세차게 내뿜어 침투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 상념법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고 해도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에게는 가벼운 만성지병이 여러 종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GAP 활동으로 수년간 돌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늘 분투하고 있습니다. 본부 임원들의 말에 따르면 저는 본인 나이의 반정도, 즉 35세 정도의 체력과 기력을 가진 경이적인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만성지병이 낫지 않는 것인가라고 의아해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직 저의 신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100퍼센트의 신념을 전부 발휘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전부 발휘하겠습니다.

생기 발랄하고 즐거운 기분을 유지할 것

어쨌든 저는 “영원한 24세”라고 자부하고 있으므로, 정신적으로 나이를 먹는 일은 없습니다. 왜 24세를 표방하는가 하면, 옛날 이 나이 때에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일년간이 가장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과거의 즐거운 기억을 간직해야 하고 나쁜 일은 잊어버리는 쪽이 좋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나이가 들면 버스나 시영 전차의 무료 또는 할인 승차권이 교부됩니다. 이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실제로 사용해 보면 썩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나도 70 늙은이가 됐구나」라고 노인 기분이 들어서 견딜수가 없으므로, 잔돈이 있을 때는 가능한 한 무료 승차권을 사용하지 않고 버스 요금을 내고 타고 있습니다. 또 제 복장을 멋을 냈다든지 유행을 쫓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라」식으로 복장도 젊은 기분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지책인 것이며, 단순히 젊은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기분을 젊게 갖는 것, 이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최대의 비결입니다. 이것에 더해서, 반복상념을 끊임없이 행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생각없이 걷지 않습니다. 한 쪽 발을 앞쪽으로 내밀때에 「감사」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다음 한쪽 발을 내밀때에 「합니다」라고 울동적으로 외칩니다. 걸을 때의 걸음 수 만큼이나 이것을 외치는 회수도 많습니다. 가끔 수백장의 GAP 관계 광고지 등의 일정 부분에 고무 도장을 찍는 일이 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심심하고 따분한 일이지만 저는 전혀 따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무도장을 한 번씩 찍을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찍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로 즐거운 일이며 이런 좋은 일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대우주 상념법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누구에게 감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대우주의 창조주에게입니다. 창조주라고 하면 아무래도 종교적으로 들리지만, 저의 빈약한 두뇌로 생각하더라도 이 우주는 우연의 현상이 아닙니다. 무언가의 근원적인 예지와 힘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천체 물리학적으로도 수수께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구조가 완전히 해명되었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다면, 이것 이상으로 오만한 태도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저는 예전부터 대우주 명상이라고 일컫는 상념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상」이라고 하면 종교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현재는 「대우주 상념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약칭은 「우주상념」입니다. 그 요령은 간단합니다. 우선 일어서서(앉아도 좋다) 몸을 유연하게 한 채, 양손을 앞에서 깎지껴서 아랫배에 댑니다. 얼굴은 조금 위를 향하도록 합니다. 양쪽 눈을 감고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입을 다물고 코로부터 조금씩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것을 아랫배로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숨을 아랫배로 떨어뜨려 가득 찼을 때 숨을 멈추고 그 때 전신에 대우주의 생명력과 예지가 전신의 세포에 충만됐다는 느낌을 일으킵니다. 이 때에 자신이 실현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는 소망을 외치고, 함께 이미지를 그립니다. 건강해져야지라고 생각하면 「자신은 건강하다, 병은 나았다」라고 외치고, 실제로 나아가서 건강해진 이미지를 확실히 마음속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입으로부터 숨을 조금씩 내뿜어 갑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반복상념과 이미지 법은 반드시 대우주 상념법과 함께 행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상념법과 함께 행하면 가장 좋습니다. 이상의 우주상념을 끈기 좋게 성실히 계속한다면 난치병은 나올 것이고, 소망도 실현됩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예가 제 주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효과가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소리 높여 공표하지 않습니다.

마하 그루 멧타 상념법

아무리 해도 대우주 상념법이 잘 되지 않는다. 마음이 산란해서 어쩔수가 없다는 사람은 위를 향해 머리를 뒤로 젖힌 채로 상념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세계 여러 UFO단체와 정신세계의 탐구단체나 개인연구가와 교류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마하 그루 멧타」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영문판 「UFO contactee」지의 제 9호를 보냈더니 정중한 답장에 엽서 모양의 카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음과 같은 훌륭한 말씀이 영문으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자신 혹은 타인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경우는 눈을 감고 입술을 움직이지 않은 채, 다음 말을 마음 속으로 늘 반복하십시오. “나는 영혼속에 있는 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00씨(환자의 이름을 외친다)의 영혼속에 있는 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외치면 반드시 치유가 됩니다! 당신은 그 결과에 경탄할 것입니다! 100 퍼센트 성공한 예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앞의 말 중의 「신」이라는 말이 종교적이라고 해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은 그것을 「창조주」로 바꿔 말하면 됩니다. 창조주라도 마음에 걸리는 사람은 「우주의 의식」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저는 이 인도네시아의 “치유의 말”을 어떤 사람의 지병을 고치기 위해 응용해 보았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어서 무척 놀랐습니다. 그 사람의 저에 대한 태도까지 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험해 보십시오.

고귀한 운명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정신 세계의 탐구를 종교적이라고 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진보할지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타인을 어떻게 도와 줄 것인가에 있습니다. 만약, GAP를 매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앞의 치유상념을 실행하면 상대는 각성하고 반성할지도 모릅니다. 또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위의 멧타 상념법에 의해 마음의 치유 상념을 행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든지, 혹은 아무말 없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 당신은 고귀하고 찬연한 운명을 만

들게 됩니다. 이상의 방법은 절대적으로 유효하므로 시험해 보십시오. 저의 요즘 의식은 만물은 전부 대우주 창조주의 발로이고, 오히려 창조주 바로 그 자신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한 무엇을 보더라도 누구를 보더라도, 창조주 바로 그 자신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훨씬 진보를 이룬 위대한 혹성군의 사람들과 지구인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 「우주의 창조주」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애덤스키의 「제 2혹성으로부터의 지구 방문자」에는 우주인은 야간의 수면중이라도 창조주를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지구인의 생명관, 우주관은 불손하면서도 아직 유아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개념에 따른 생활 태도를 갖느냐 갖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차가 생긴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생활태도는 저로서도 극히 어렵습니다만, 어떻게든 노력을 계속할 작정입니다.

우주철학으로 초능력을 개발한 사람

시카모토 마사히로(坂本正廣)씨는 신 애덤스키 전집 제 3권 「생명 과학」을 읽고 그 안에 쓰여져 있는 초능력 개발법을 실습한 결과 텔레파시, 오오라 투시, 원격 투시 그 밖의 훌륭한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이하는 필자와 대담한 대단히 유익한 내용입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의 우주에로의 동경

Q: 당신의 체험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듣고 싶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우선 당신의 성장 과정부터 듣고, 그 후에 「생명 과학」에 접촉하게 된 동기라든지, 그것을 매우 열심히 읽은 일이나, 손을 응시하는 연습을 했던 것, 오오라가 보이게 된 경과 등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들려 주십시오.

A: 저의 성장과정은 환경이 좋지 않았습다. 태어나서 철이 든 시점까지 집이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세 살인가 네 살 때에는 머리를 다쳤습니다. 철도전로의 건널목을 건너다가 넘어져서 철로에 머리를 부딪혔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상처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놀라서 병원에 자전거로 데리고 가 주셨는데 그 때의 의사 얼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Q: 아버님께서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A: 아버지는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오셨기 때문에 이렇다 할 일은 할 수 없었습니다. 도쿄의 육군 병원에서 3년간이나 의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부대가 전멸해 돌아 온 후에 입원해서 회복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뒤 어머니와 결혼했고, 직업은 임시 고용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두부에 탄환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반신불수였습니다. 상당히 고생하고 있었던 듯하며, 저의 환경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 때는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 힘든 때 일곱 살 정도였던가 달에 대해서 대단한 동경과 이상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달 표면에 훌륭한 건축물이 있고, 거기에는 지구상에서 가끔 보는 비행기와는 다른 물체가 날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공상하고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집수리를 할 때 벽에 그와 같은 그림을 그렸던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달은 왜 생겨난 것일까라든지 달의 표면이나 내부는 어떤 상태일까라는 의문을 품었던 것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어느 한 분인가가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쓸쓸했고 친구도 없었으며 공부할 의욕도 없어서 병원에서 하염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 때는 완전히 비참했다고 하는 말 밖에 달리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돌을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 동급생을 통해 수정을 보게 되면서 점점 과학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6학년 때는 상대성 원리라는 말을 알고 그 때부터 「우주」의 문체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본래부터 우주적인 일에 흥미를 갖는 것이 제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때 였으므로 어려운 것은 몰랐지만 우주의 광대함을 마음속에 떠올리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뒤에 그다지 공부는 좋아하지 않았고 성적도 중간정도 였습니다. 나중에는 자연이 좋았고, 야산으로 가서는 멍하니 있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제일 좋았으며, 그림으로 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중학생때는 그림에 몰두하게 되었고, 화가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혼자서 자기(磁氣)를 배우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집안이 가난했으므로 곧 취직하게 되었고 학교의 추천을 받아 어느 전자부품 제조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전 히로시마 현에서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었던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전쟁에 나갈 때에 재산을 타인에게 맡겼고, 지나치게 고지식한 사람이어서 재산을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전자부품 회사에서는 중학교 출신의 능력으

로는 안된다고 하며 좀 더 공부하라고 해서 야간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나 공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열심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학교는 주간에 일하고 야간에 통학했지만 공부는 잘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일년 정도는 자기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기이론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당시 독일과 소련으로 그 관계 서적을 사와서 번역을 시도해 보았지만 잘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나고야의 마루젠 서점에서 자기에 관한 책을 구입하여 여러 사람에게 배우면서 자기를 공부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부서는 테이프 레코드의 헤드를 만드는 곳으로 헤드는 자기가 발생합니다. 저는 그 헤드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자기에 관한 것을 배웠지만 수준이 낮아서 저는 스스로 더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야간에는 가끔 망원경을 가지고 나와서 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사에는 4년간 있었습니다. 4년째에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 오사카로 나와 2년 정도 살았고, 그리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이곳에서도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향에서는 술집 종업원이나 다방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생활에 곤란을 겪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주, 원자, 하늘을 나는 새 등에 관심이 있어서 가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생명 과학」을 발견

1985년 9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에 갔더니 우주 코너에 애덤스키의 책이 있었습니다. 애덤스키 전집 「우주 철학」과 「생명 과학」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때 「생명 과학」을 3시간 정도 읽고 다시 빌려서 돌아 왔고 사실은 2주일 내에 돌려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지만 2개월 정도 빌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읽어도 내용이 어려워서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온 사람이 일본 GAP 마쓰야마 지부라고 하는 것이 있으며, 매월 월례회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고 저는 거기에 출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대단히 훌륭한 내용에 감탄했습니다(그 후 마쓰야마 지부는 사정에 의해 해산되었다). 그 때 「생명 과학」등에 관해 기본적인 것을 여러 가지 듣고 그 뒤부터 스스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는 마음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연습을 시작했어도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에 제가 근무하고 있던 심야다방은 한가한 시간이 많고, 손님이 없을 때는 만화책을 읽거나 사람과 떠들 정도로 달리 할 일은 없었습니다.

양손을 응시하는 연습을 맹렬히 계속하다

저는 자신의 양손을 응시하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생명 과학」에 있는 설명에 따라서 했던 것입니다. 그 가게는 불량배가 많이 오는 장소로 파동이 나쁜 가게였습니다. 근무 장소가 나빠서 근무하는 것이 싫어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명 과학」을 믿고 연습을 계속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며 손을 응시하는 연습을 맹렬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책을 읽으면 머리가 아파 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상념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겠죠. 거부 반응이 나왔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머리가 아픈 것을 넘겼을 때 N씨라는 사람과 서로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이 애덤스키 철학에 관한 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둘이서 공부할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저는 매일 6시간이나 7시간 손을 응시하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계속해서 6시간이나 계속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틈을 봐서 때때로 연습한 시간의 실질적인 합계가 그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을 응시하고 있자 담배 연기처럼 하얀 아지랑이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며 “눈이 이상해진 걸까”, “그렇지 않으면 마침내 정신이 돌아 버린 걸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때는 오오라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손을 응시하고 있자 손에서 양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흥분해서 열이 나온 것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Q: 손을 응시하는 연습을 시작한 뒤, 아지랑이가 보이기 시작할 때까지 며칠이 걸렸습니까?

A: 「대강 일주일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때까지는 매일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손을 응시하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그 때까지는 ‘생명 과학’을 충분히 읽고 있었고, 손을 응시하는 연습을 하면 얼마 안 있어 손안의 구조나 에너지의 운동이 엑스선으로 투시하는 것 이상으로 차츰 잘 보이게 된다는 설명을 읽고, 일개월 정도 연습을 하면, 반드시 보이게 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분으로 적당히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굳은 결심 하에 시작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보이게 된다!”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공하지 않았을 때는 나는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오라(후광)가 보이게 되었다!

Q: 손을 응시하는 연습을 계속할 때에 무엇이 보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손

안을 투시할 수 있게 될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A: 어쨌든 무엇인가가 보이게 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오라 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무엇인가가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물이 흐르는 것 같은 입자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 입자의 흐름은 처음 공중에서 보였으므로 담배연기인 가라고 생각하며 불이 나면 안된다고 생각해서 근처를 둘러보았지만 불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자의 흐름이 보인 후 좀 어두운 곳에서 손을 보자 희뿌연 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앗! 보였다! 이거야! 라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N씨도 이것이 오오라가 아닐까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후로 급속하게 저의 의식이 높아져 갔습니다. N씨는 대단히 열심히 분으로 가게에 와서 약 일년간 들어서 「생명 과학」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만 주문 받은 것을 내가고, 나중에는 들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음악을 들었더니 머리가 이상해졌습니다. 머리 속이 빙빙 회전하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런 대단히 기묘한 상태가 일주일간 정도 계속된 뒤 같은 음악을 들었더니 대단히 고양감이 일어났습니다. 등줄기가 찌르르 해지는 것 같은 고양감입니다.

Q: 어떤 음악입니까?

A: 대중가요에서는 없고 클래식에서 베토벤의 “전원”같은 느낌의 곡입니다. 이런 음악을 원래 좋아합니다. 이제는 그런 음악을 들으면 무중력 상태로 우주공간을 떠돌고 있는 듯한 상쾌한 상태가 됩니다. 재즈 풍의 음악은 안됩니다.

텔레파시 능력이 나오게 되다

Q: 그 후로 저의 내부에 급속한 의식개혁이 발생했습니다. 암흑 속에 한 점의 빛이 생기고, 그곳으로부터 굉장한 빛이 퍼져나간 듯한 느낌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그 때까지 저의 내부에서 잠자고 있던 것이 일제히 눈을 뜬 것 같은 상태입니다. 머리 속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일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것이 정리되고 융합되서 새로운 사고방식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도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 문득 떠오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책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 과학”에 의해서 제가 정리된 듯한 기분이 들고, 대학생에게 생물이나 화학이야기를 하면 상대가 놀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물에 관한 것은 모르지만 생각하지 않아도 해답이나 설명이 머리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Q: 텔레파시를 할 수 있는 감지력이 발달하게 되었던 것이겠죠.

A: 본래부터 공부가 싫었고, 어려운 책은 읽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흥미를 갖고 책을 읽습니다. 식물, 물고기 기타 사물 등 좀 더 「생명 과학」을 잘 이해하면, 저의 의식이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래 마음이 협소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작았었지만, 그것은 저의 신념이 협소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 과학」에서 말하는 「의식」이라는 것은 보통 인간의 의식과는 다르며 “신” 바로 그 자신의 힘을 의미합니다만, 인간의 마음을 그 우주의 의식과 일체화시키면, 자기 자신이 굉장히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조하게 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생명 과학」에 쓰여 있는 것을 천분의 일도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색을 띤 오오라와 무지개 같은 광채

Q: 지금은 인간의 오오라에 색이 있는 것이 보입니까?

A: 보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황금색에 가까운 오오라를 봤던 것은 외국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오오라가 보입니까?”라고 물어서 “보입니다. 당신은 금색의 오오라입니다”라고 한마디로 대답하자 그 사람은 바로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그 후 또 그 사람이 찾아 와서 종교철학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같았습니다. 아직 저의 오오라 투시력은 약합니다. 하지만 좀 더 잘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휴식을 취했을 때에는 잘 보이지만 긴장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실은 오오라보다도 더 강한 것이 보입니다. 빛이 물체에 부딪쳐서 반사되면 그 스펙트럼이 무지개가 되어 전부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선생의 손목 시계에 빛이 반사되고 있는 부분에서 역시 무지개가 방사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20와트의 갓 없는 전구가 빛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주위에 파란 오오라가 보이며, 차츰 빨간색으로 변하고 그 동안에 전구 내부의 발광하는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마치 투명한 전구를 보는 것처럼 내부가 보이는 것입니다. 요전에는 제 손을 가만히 보고 있었더니 손안의 혈관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지금은 스스로 피우는 담배의 맛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담배를 응시합니다. 그러면 부드럽게 됩니다. 응시하고 있으면 담배로부터 빛이 나오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피워도 구멍이 숭숭 뚫려서 맛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담배의 맛 정도는 제 생각대로 통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텔레파시는 어떻습니까?

A: 텔레파시는 상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조금씩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뭔가 좋은 일을 '해야지' 라고 할 때에 이것은 실현된다고 생각하면 그 방향으로 움직여 갑니다. 그러나 뭔가 야심을 가지고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반대로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원격투시와 과거세상 투시를 행하다

Q: 다른 초능력, 예를 들면 원격투시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A: 제가 의식 속에서 프랑스나 뉴욕으로 여행을 간다면 어떨까하고 실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전혀 알지 못하는 광경이 눈에 확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처음에 전구를 30분 정도 눈이 피곤해 질 정도로 보고 있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잔상이 대단히 오래 남습니다. 눈을 감아도 잔상이 남습니다. 그 안에 영상이 떠오릅니다. 제가 가고 싶은 프랑스인 듯한 광경이 텔레비전으로나 보는 것 같이 흥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때때로 굉장히 선명한 영상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컬러로 보이는 일도 있으며, 흑백의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세상을 투시하는 실험도 했습니다. 그러자 피라미드가 차츰 보였습니다. 중국인인 것 같은 장면이 보였던 적도 있고 일본식 옷을 입은 여성이 제 모습으로 비춰진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화려한 빨간색의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스타일의 옷입니다. 아마도 중국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나라이름은 모릅니다. 눈을 감고 전구의 잔상을 응시하고 있으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곳이 확 열렸다고 생각하면 그런 광경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는 소용돌이치는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Q: 전구를 응시하고 있었던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A: 오오라가 보이게 된 후, 일개월 정도는 매일 전구를 응시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매일 5분이나 10분간 정도 응시하는 것을 최저 5회는 하고 있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무서운 생각을 했습니다. 잠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중에 입자의 흐름 같은 것이 보인 뒤 2,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동안에 여러 가지 현상이 한꺼번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창문 유리에 은색 창살이 있는 것을 보고 있자 무지개 같은 빛이 3중, 4중으로 방사되고 있는 것이 보였고, 이것은 대단히 아름다웠습니다. 지금은 자동차의

헤드라이터를 봐도 빛이 무지개가 되어 보이므로 눈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빛이 확하고 부딪혀도 전혀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은 안됩니다. 태양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1초나 2초 정도밖에 직시할 수 없습니다.

손을 응시하는 연습이 좋았다.

Q: 그렇다면, 오로라나 원격투시 등의 초능력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손을 응시하는 연습을 했던 것에 있다는 뜻입니까?

A: 그렇습니다. 손을 응시하는 연습이 최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 그것을 믿고,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강렬한 신념을 가졌던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Q: 손을 응시하는 연습을 시작한 뒤 오오라의 색이 확실히 보이게 될 때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A: 잘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개월은 걸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처음에 하얀 아지랑이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은 꽤 빨랐고 그 후에 급속히 색을 띤 오오라가 차츰 보이게 되었습니다.

「생명 과학」을 매일 6시간 이상 읽다.

Q: 생명 과학도 처음에는 하루에 6시간 정도 읽었다고 들었는데요.

A: 네, 6시간 이상 읽었습니다. 다방 일이 12시간 근무이며, 그 중 실제 일은 실질적으로 3시간 정도였으므로, 나중에는 가게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잠잠이 읽었던 것입니다. 6시간 계속 읽었던 것이 아니라, 일하는 틈틈히 조금씩 읽은 시간을 합계해서 6시간 또는 그 이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심야 다방에서 일하게 된 것도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일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 방면의 자기 훈련을 하기 위해 뭔가의 “힘”이 저를 그곳으로 끌어 들였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시, 심야 다방과 한가지 더 다른 일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의 수면 시간은 3시간 정도였습니다. 두 종류의 일을 주야 교대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사도 줄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심야 다방 일을 그만뒀고, 이제 한가지의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던 일이 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도 처음에는 재미 없는 부서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좀 더 좋은 부서로 바꾸고 싶다고 계속해서 생각

했더니, 정말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위대한 신념의 힘

Q: 저는 「인간은 자기 신념대로의 인간이 된다」라는 애덤스키의 말은 정말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념의 힘은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저 자신만의 것으로 하지 않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에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신체 장애자를 고용하는 회사로, 보통의 영리회사와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일을 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사장도 황금색에 가까운 훌륭한 오오라를 발하는 사람이며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때 구렁텅이에 떨어졌었지만, 그러한 시기에 「생명 과학」을 발견했던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풍족해 있을 때에 「생명 과학」을 읽었다면 열의가 깃들지 않았었겠죠? 오히려 돈 벌이하기 위해 달리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도 안된다는 절망적인 때에 애덤스키의 책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3시간 정도밖에 자지 않는 수도승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능력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드시 초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라는 강렬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쉬면서 연습하는 것이 좋다.

Q: 눈의 시력이 떨어지는 일은 없었습니까?

A: 그런 일은 없습니다. 조금은 눈이 피곤했습니다. 욕조에 들어가 쉬면서 연습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목욕탕에 20와트의 전구가 있어서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나면 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손을 보기도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한 순간 순간에 손을 응시하든지 하고 있었습니다. 딴 것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손을 보는 것입니다. 초목이라도 응시하고 있으면 차츰 오오라가 보이게 됩니다. 산 같은 것을 보면 굉장합니다. 오오라라기 보다는 힘찬 생명이 기운 같은 파동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Q: 손을 응시하는 연습에서는 손등을 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손바닥 쪽입니까?

A: 저는 손등을 위로해서 손가락 사이를 보는 것처럼 했습니다. 등을 보면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나오게 된 능력입니다. 제가 다방을 그

만 두기 반 년 전에 가게에 손님으로 온 부인의 몸을 응시하고 있었다니 그 사람의 체내에 자궁 근종의 혹이 세 개 정도 보였던 것입니다. 내장이 황폐해지고 위가 나쁜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한가지 것을 이해한다

Q: 저는 무언가 한가지 일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전부를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의 일을 알면 전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언가 한가지 일에 성공해서 그것을 증폭하면 전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수준이 낮은 것은 당연합니다. 누구나가 한가지의 일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어둠 속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한가지의 일을 알고, 그 후에 많은 일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UFO의 엔진 역시 일시에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스템이구나라고.

Q: 어떠한 시스템입니까?

A: 비행접시의 바닥에 3개의 원형 콘덴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엔진은 돌지 않습니다. 그 엔진은 아마도 단극자기 플러스 하나에 에너지를 넣어서 영구적으로 회전하는 것이며, 지금 연구하고 있는 초전도체를 합친 것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도의 수준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에서도 얼마 안 있어 초전도체의 영구 모터가 생기겠죠? 아직 세라믹이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요.

Q: UFO를 본 적이 있습니까?

A: 딱 한 번 본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인 16세때입니다. 그 때 4명이서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기묘한 움직임을 하는 물체는 지구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고야 근처의 산 속입니다. 방위청에서 자료를 발표하는 잡지가 있는데 그것은 1966년경으로 그것을 봤을 때에 UFO가 날았던 항적에 관해 쓰여 있었고, 우리들이 본 물체가 바로 그것에 해당하는 듯 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UFO가 틀림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요즘은 UFO를 보지 못했습니다. 대우주의 무한의 공간으로 생각을 돌리면 우리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운인 안드로메다 성운에도 굉장한 발달을 이룬 인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드로메다 성운이 있는 방향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소용돌이 모양이 확실히 보이게 됩니다. 그 성운 안까지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소용돌이 모양이 보일 뿐입니다. 생

명체의 움직임이 있는 것같은 느낌입니다. 그곳에는 과학이나 정신이 상상을 초월해서 진보해 있는 혹성도 있겠죠. 따라서 요즘 「생명 과학」에서 배우고 있는 우리들의 수준은 아직은 까마득히 낮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Q: 우주인인 듯한 사람과 만난 적이 있습니까?

A: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Q: 오오라로 알 수 있겠죠.

A: 아니요, 아직 그런 대단한 오오라를 내보내고 있는 사람과 만난 적은 없습니다. 이전, 제가 있던 가게에 외국인 여성이 온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빛이 빛나는 것 같은 멋진 오오라를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 태생이라고 말하고 있었으므로 우주인은 아닐 것입니다. 그 가게에서는 게임기로 하룻밤에 50만엔이나 돈을 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화가 나있는 그 사람의 오오라를 보면 머리 꼭대기에서 빨간 불꽃같은 빛이 소용돌이치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게에 오지 않게 되어서 어떻게 됐나하고 생각하며 눈을 감자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미지를 그리며 눈을 감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의식을 집중시켜야 하므로 너무 오래하면 피곤해집니다.

Q: 미래 예지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도쿄 대지진의 발생같은 것은?

A: 미래를 예지하는 일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미래 운명 같은 것도 그냥 알 수 있게 되므로 이 사람이 이제 얼마 안되어 죽게 되겠구나라는 기분이 들면 정말로 그대로 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예지 한다는 것은 두렵습니다. 도쿄 대지진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폭동 같은 것이 언젠가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세계 핵전쟁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본 열도가 바다에 가라앉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열의가 깃든 사카모또씨의 흥미 깊은 이야기는 장시간에 걸쳐 계속되었고 「생명 과학」을 철저히 읽으며 초능력은 반드시 개발할 수 있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매일 최소 2시간은 손을 응사하는 연습을 계속한다면 누구든지 반드시 성공한다고 몇 번이나 역설하는 것이었다. 어릴때부터 기구한 운명을 겪으며, 30대 중반으로 훌륭한 초능력자가 된 사카모또씨의 실화야말로, 애덤스키 철학의 옳음과

위대함을 더할 수 없이 입증하는 일일 것이다.

사카모또씨의 체험담에서 중요한 점이 세 가지 있다.

한가지는 사카모또씨가 역경에도 불구하고 어린시절 우주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있었다라는 점이다. 이것은 어쩌면 과거 세상으로부터 우주적인 카르마를 가지고 이승으로 환생해 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따라서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카모또씨가 초능력 개발에 이르는 도중에 우주인이 도움을 준 것이 아닐까? 12시간 근무의 심야 다방에 들어간 것도 우연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무언가의 손에 의해서 독서를 매일 실질적으로 6, 7시간이나 할 수 있는 환경에 인도되어 졌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은 흔히 있는 것이 아니다. 한편으로 구렁텅이로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최고의 직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시간이 아무리 주어져도 본인이 진지하게 공부할 마음을 일으켜서 맹렬한 독서와 손을 응시하는 연습을 계속하지 않으면 성과는 오르지 않는다. 따라서 궁극에는 사카모또씨 자신의 강렬한 신념과 실행력의 결과인 것이다. 그는 보통 사람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고행을 수행했던 것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한가지의 일을 이해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라는 사카모또씨의 말이다. 이것은 텔레파시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라도 나오게 되면 다른 초능력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는 의미로도 연결된다. 사카모또씨의 경우는 손을 응시하는 것에 의해, 우선 하얀 아지랑이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색을 띤 오오라의 투시, 원격투시, 텔레파시 등의 능력이 일제히 개화되었다. 그래서 초능력이 어느 수준을 돌파하면 넓은 세계가 열린다는 의미가 진리의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외국어 학습의 경우에도 꼭 들어맞는다. 영어 회화 등도 처음에는 자신이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작은 세계를 우선 만들고 간단한 잡담도 좋으므로 자신만의 “작은 영어권”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면 나중에는 갑자기 뭐든지 말할 수 있는 넓은 세계가 전개된다. 초능력 개발도 이것과 같은 식이다. 처음부터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편이 좋을 것이다. 사카모또씨는 초능력을 살려서 타인을 돕고 있는 진짜 초능력자이다. 근래에는 정신세계 관계의 서적이 범람하고, 초능력의 붐이 일어난 적도 있다. 이것은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심령적인 위험한 방법을 설명한 책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또 손끝만큼의 초능력은 익히는 것에 급급해서 대우주 창조력과의 일체감을 전혀 일으키는 일없이 그저 손만 보고 있으면 초능력이 개발되는 것도 아니다. 애덤스키의 「생명 과학」이나 「초능력 개발법」은 단순한 초능력 개발서가 아니라 인간과 대우주의 영혼(애덤스키는 이것을 “우주의 의식”이라 하고

있다)과의 일체된 느낌을 일으키고, 우주적 감각을 고도로 발달시키는 방법을 말한 것으로, 우리들은 이것들을 총칭해서 애덤스키 철학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철학이라기보다도 자기개발서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것을 실천해서 자기의 느낌을 고양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많은 인내력과 불굴의 신념을 요하는 것이지만, 이를 악물고 계속하면 나름대로의 성과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가루마의 법칙(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엄연히 작용하기 때문이다.

쿠보다 하찌로우

1924년생 시마네현 출신, 게이오 대학 졸. UFO와 우주철학의 연구가. 이외에도 논픽션 미스터리류의 저서가 있다. 1961년부터 UFO와 우주철학의 연구 단체 「일본 GAP」을 주재하며, 죠지·애덤스키 지지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전문지 「UFO contactee」지를 발행하는 한편, 매월 도쿄 내에서의 일본 GAP 주최의 세미나나 지방지부 대회에 있어서의 세미나 등에서 UFO 문제, 능력개발, 우주적인 생활 태도 등의 강연지도를 행하고 있으며 덴마크나 미국에서도 강연을 했다.